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2돐이 되었다.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날다른 민족적궁지와 환희에 넘쳐 이 날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기에 오늘 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계속되는 침략위협속에서도 끄떡없이 배심든든하게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다.

민족의 대극상후 조선이 어느 길로 나아갈것인가 하는것은 전세계의 관심사였다.

바로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인민군부대에 대한 현지시찰을 단행하시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미국의 AP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후 군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면서 군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박수도 쳐주었고 지휘관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귀가에 대고 가르침도 주시였다. 그분께서는 군부대시찰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병사들의 잠자리를 돌아보았고 지어는 수도꼭지들도 검사해보며 물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알아보았다. 김정은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이 나라의 새 령도자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고수할것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전하는 동시에 그분의 사업방식을 시사해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제 101(2012)년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새해 첫인사를 드르신 그 길로 조

천 출 명 장 을

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신것은 선군위업의 변함없는 계승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것과 같은것이였다.

선군위업의 변함없는 계승을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척선 인민군군인들을 찾아 멀고 험한 전선시찰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수령님께서 걸으시였고 장군님께서 헤치시였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 이 라 고, 나 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견고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라고 하시며 최전방 판문점을 찾으시여 병사들에게 일당백장수힘도 안겨주시고 다치면 터질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참에 한 정세가 조성된 준엄한 시각에 자그마한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

며 인민군장병들을 조국결사수호와 싸움준비강화으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킨 그이이시다.

오늘도 철령의 새벽안개, 오성산의 산악은 그이께서 헤쳐가신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험난한 전선길의 사연많은 이야기들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자기 힘이 강하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수 없고 인민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는 드림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천만리길

은 올해에도 끝없이 이어지며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심

과 락판을 안겨주고 반공화국적대세력들에게는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다.

미국의 반공화국침략행동에 의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부르시여 건군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를 몸소 지도하신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지난 6월 중순에도 그이께서는 잠수함에 오르시여 파도를 헤가르며 나아가는 함의 침로도 정해주시고 항해술에서 나서는 묘술도 가르쳐주시면서 나라의 바다를 철벽으로 지키는 해병들에게 힘과 용맹을 안겨주시였다.

얼 마 전 에 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그 무엇도 팔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의 힘

에 의해서만 담보되는것만은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사수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을 최

대의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온 겨레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신뢰하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는 그이의 탁월한 정치실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북의 주민들이 모두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지도자로 높이 모시고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의 능력은 바로 실력으로 판가름된다.

김정은원수님은 자신의 실력을 앞세워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할수 있다. 한 나라를 령도한다는것은 단순히 정치행정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원수님의 실력은 정치행정분야뿐만아니라 군사작전분야에서도 그대로 표현되고있다. 군사작전에서 김정은원수님의 대응능력을 시험해보려다가는 엄청난 대재앙을 불러올수 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날에날마다 비약하는 공화국에서 경제전반이 새로운 활력에 넘쳐 전진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개황기가 펼쳐지고있는 이 경이적인 현실은 총대를 앞세우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이루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최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머지않아 존엄높은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최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발사훈련, 국방과학기술, 군수공업부문에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시험발사와 같은 발사와 훈련들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위협천만한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한 자위전쟁사이다.

전술무기들의 과학기술적, 전투적성능의 검증과 사격방법의 완성, 무장장비들의 발전에서 거둔 성과를 놓고 사람들이 다스금 감복을 금치 못해하는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남기신 명언의 깊은 뜻이다.

—사량이 없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는 살수 없다.

—군사는 군사중의 제일국사이며 국방공업은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비범한 령도, 거대한 업적을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이다.

일찍부터 군사를 앞세우고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수호의 관건적문제로 여기신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의 전기간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발전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국방력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지난 세기 90년대중엽 공화국은 민족의 대극상과 거듭되는 자연재해,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를 기회로 공격의 화살을 조선으로

돌린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전례없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무릇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사흘동안 수습해야 하고 가족이 재난을 만나면 3개월을 수습해야 하고 고을이 재를 당하면 세해를 수습해야 하지만 나라가 재난을 당하면 30년을 수습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선이 겪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은 말로써는 다 형언키 어려운 최악의 고난이고 최대의 시련이였다.

명언의 참뜻을 새겨본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연히 택하신것은 군력강화를 위한 선군정치였다.

우리가 나라의 경제행편이 어렵다는것을 몰라서 인민군대를 찾아가는것이 아니다. 그 어떤 피값을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키고파야 한다시며 전선에서 전선으로 선군장정을 끝없이 이어가신 장군님 이시다.

그 나날 그이께서 국방력강화를 위한 문전에 수료를 하시며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에게 다 이야기해주마고, 인민들은 왜 해리마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해 다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하신것은 바로 오늘과 래일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였다.

주체87(1998)년 12월 어느 날에도 그이께서는 우리가

파자나 알사랑같은것은 만들지 못하여도 살아갈수 있지만 무기와 탄알을 만들지 못하면 살아갈수 없다, 우리가 무기와 탄알이 없으면 나라를 지켜낼수 없으며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하시면서 국방공업발전과 군수생산에 선차적힘을 돌리도록 강조하시였다.

군수공업부문을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국방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첨단기술에 기초한 전투기술기재들과 장비들을 개

미국본토를 날려버릴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미국을 무력화시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웅이다고 전했었다.

평화는 구결과 간청, 타협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으며 오로지 강력한 자위적무력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수 있다

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선군의 길을 걸으면서 자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한 공화국인민들이 때부로 절감한 철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에 의해 마련된 자위적전쟁억제력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정밀화, 정

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현대적무기와 무장장비들을 갖춘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이 땅에서 우리 공화국이 단행하는 모든 군사적조치는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맞선 정의롭고 단호한 자위전쟁사이다. 위력한 전술유도탄시험발사와 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소중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그 무엇도 팔고 사는것도 아니며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 힘이 강할 때에만 지어지고 오직 자기 힘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나라의 방위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의 고귀한 가르침의 참뜻을 새겨보게 되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인민경제 여러

부분, 단위들과 인민군부대들에 이 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장정의 힘찬 발걸음과 현현한 기상에 투철한 자주정신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

자주는 그이의 정치신조이고 령도방식이며 실천이다.

일찍부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애국의 길에 함께 하시면서 주체의 원칙, 자주적대가 독립없는 비범한 령도로 애국위업을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실력은 이제

도 오늘도 거창한 실천속에서 뚜렷이 파시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승리와 통성변영의 길이라고 하시였다.

그이의 자주정치의 위대성은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공화국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주체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고있는데서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자립적민족경제와 주체적민족문화는 자기

인 민 사 랑, 후 대 사 랑의 길 에 서

원 아 들을 위 한 특 별 연 회

지난 국제아동절 다음날이였다.

평양애육원 원아들에게 류다른 특별연회상이 마련되였다. 평안자랑, 꿀찰떡, 칠색송이편육기 등 별미나는 음식이 차려졌던 것이다. 맛나는 음식들을 드는 원아들을 한명한명 살펴보는 원장에게는 어제 있는 일이 방불히 떠올랐다.

6.1절의 한낮이 기우는 저녁무렵 뚝박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애육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국제아동절을 맞은 원아들이 보고싶어왔다고, 내가 아이들의 명절날에 애육원 원아들을 찾아 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는가고 하시며 그곳을 찾으신 원수님께서는 원아들과 한테 어울려 짧고도 긴 시간을 보내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6.1절식사차림표도 보시고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신 그이께서는 매일은 원아들에게 평고기완자를 만들어 먹이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원아들을 위해 사려깊이 마음쓰신 원수님의 온정 어린 배려와 조치에 의하여 이튿날 원아들이 특별연회상을 마추하게 된것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6.1절식사차림표도 보시고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신 그이께서는 매일은 원아들에게 평고기완자를 만들어 먹이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이렇게 원아들을 위해 사려깊이 마음쓰신 원수님의 온정 어린 배려와 조치에 의하여 이튿날 원아들이 특별연회상을 마추하게 된것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떠나실 시간이 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원장에게 아이들이 저녁을 언제 먹는가고 알아보시였다. 7시에 먹는다는 그의 말을 들으신 원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아들이 밥을 먹는것을 보고가겠다고 하시며 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않는가고 나직이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상점에 승강기를 놓도록 할때 대하여 이리시였다.

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곳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상점시공에서의 편향을 헤아리시고 계산단만 만든것은 인민성이 없는 표현이라고 나무람하시며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지적하시였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날 손님들이 리용하게 될 밀차도 움직여보시며 상점에서 상품봉사와 구매자들의 편의에서 사소한 허점도 생길세라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승강기를 설치할 문제를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시공에 없던 승강기가 새로 설치되어 상점을 리용하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것이다.

본사기자

고 강성국가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며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장하는 불패의 자위적보검으로 되고있다.

지난 4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성원들을 만나신 원수님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아랑과 신의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철저히 지부서버릴것이라고 하시였다.

그 누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치경색단을 단호히 내리는 철의 의지, 한번 결심한것은 어떤 역경이 막아서도 거침없이 밀고나가는 완강한 전개력, 적대세력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내대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로 맞받아나가는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만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조선의 자주정체는 절대변변이다.

위대한 정치군사강국, 사회주의생활과 기상이 약동하는 나라에서 사는 군지와 자부심을 가진 공화국의 인민은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승리이며 민족이 갈 길은 오직 자주의 길뿐이라는 진리를 때부로 절감하고있다.

강은주